



병자의 날 특강

신앙의 진리와 봉사자의 자세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걸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 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1. 들어가는 말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흠뿌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 주도록 마음을 써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하여 초조해 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네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는 심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큰 기쁨을 가지고 제대로 봉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대부분 말씀드리고 이어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첫 번째로 청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다.



김 석 태(베드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교수

대전가톨릭대학교 유성성당 주임신부

2. 여러분이 교회에 첫 번째로 청한 것은 무엇인가?

세례식 때 주례사제는 세례 받는 예비 신자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이 때 세례 받는 예비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신앙을 청합니다.” 교회에 돈이나 부귀를 청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청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청합니다.”라고 말한다.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청하는 것이다. 이어 주례사제가 묻는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때 세례 받는 예비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돈과 부귀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권력과 명예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인간을 참 진리와 참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따라서 신앙만큼 좋은 것이 없다. 신앙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구



원될 수 없다.

3.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다.(Deus homo factus ut homo fieret Deus, 200년경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의 말)”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이다. 바로 신화(神化, Deificatio)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서방교회 역사 안에서 이 신화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이 대신 성화(聖化, Santificatio)라는 말을 즐겨 썼다. 우리가 하느님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이다. 동물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인간의 정을 느끼는 정도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인 하느님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결국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는 인간이 하느님(신)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신화(神化)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굳게 믿음으로써 점점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인간을 하느님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하고 난 뒤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냐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다.
바로 신화(神化)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그럼 신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설명해 보자.

4.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아는 것은 이성의 행위이며 믿는 것은 신앙의 행위이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보이는 것(감각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더 큰 앎(최고의 지혜, 하느님)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1+1=2”라는 것은 자명(自明)하며 증명될 수 있기에 믿는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말을 쓴다. 그러나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강생 혹은 육화의 신비), “하느님은 세분이시되 한분이시다.”(삼위일체의 신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인간은 부활할 것이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등은 자명하지 않고 증명될 수 없기에 안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을 사용한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며 자명하게 증명될 수 없기에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결국 보이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파악될 수 없는 것은 믿는 것이다.

5. 하느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때 이것을 미신(迷信)



信, Superstitio)이라고 한다. 돌이나 나무를 믿는다든지, 독수리나 호랑이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인간보다 아래인 돈이나 주먹이나 권력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호랑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인간을 믿거나 인간과 비슷한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때 이것을 신뢰(信賴, Fiducia)라고 한다. 토정비결을 믿는다든지, 자연의 이치를 믿는다든지, 과학의 이론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때 이것을 신념(信念, Persuatio)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철학자를 믿는다든지, 공자를 믿는다든지 부처를 믿는 것을 일컬어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을 신앙(信仰, Fides)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나 인간과 비슷한 것 더 나아가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위에 계신 어떤 분, 과학의 이론보다 위에 계시고, 자연의 이치보다 위에 계신 어떤 분, 하느님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인간보다 위에 계신, 자연의 이치와 과학의 이론보다 위에 계신 어떤 분 즉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된다. 그러나 하느님 아닌 돈을 믿을 때, 경제 제일주의를 믿을 때, 토정비결을 믿을 때 구원될 수 없다. 하느님이 아닌 공산주의를 믿거나 과학의 이론을 믿거나 인간의 사상을 믿을 때 구원될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된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을 때 구원된다는 것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된다는

신앙은 신뢰와
신념과는 다르다.
하느님을 믿을 때
즉,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때
바로 그것을
신앙(信仰)이라고
한다.

것이다. 인류가 이 하느님을 믿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으며 수많은 예언자들과 성인들이 피땀을 흘렸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안에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 차원일 뿐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가? 실직을 했거나 얼굴에 심한 화상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 심정은 어떠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일미사를 빠졌거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심정은 어떠한가?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적인 가치로 둘 때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 하느님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놓았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철철 넘치는 사랑이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느님은 자신을 비워 내어 주는 사랑이심으로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을 아는 것은 박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깨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느님과 사랑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며 이 때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사물을 아는 것은 박식하게 되는 것이다. 1+1=2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박식하게 되는 것이다. 박사나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과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게 되



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심리(마음)를 알고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응해주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늙어가는 노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갱년기 여성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깨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근본과 자신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근본이 하느님이요 자신의 근본 목적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깨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깨닫는 것, 깨치는 것이다. 불교 스님들은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수도하고 또 수도해서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근본 목적을 깨닫는다. 근본적으로 깨닫는 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통해 이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간다.

넷째, 하느님을 아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느님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과 사랑을 알게 될 때, 박식함과 지혜의 차원을, 깨달음의 차원을 넘게 된다. 그리하여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 즉 자신을 비워 남을 충만케 할 때, 자신은 낮아지고 남을 높일 때,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릴 때,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되며 이 사랑의 신비 속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이 때 바로 한 인간은 참다운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 주려는 사랑의 신비 속으

로 들어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머리보다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하게 되게 저절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이 왜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피조물과 인간에게 다 내어 주셔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없는 자 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의 이러한 모습 즉 당신 자신을 다 내어 주시는 사랑의 본성을 주려는 사랑의 신비 속에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바로 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 있는 하느님으로 모시게 된다.

그럼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봉사자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하느님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박식함과 지혜와
깨달음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다.

6.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사랑의 무한하신 하느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비어있는 무한이다.” 그렇다. 오로지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비어 있는 무한이다. 인간이 비어 있는 무한이기 때문에 오로지 무한이신 하느님만이 인간을 채울 수 있다. 사물도 돈도 명예도 비어 있는 무한인 인간을 채울 수 없다. 왜 채울 수 없는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도, 어머니도, 자식도, 비어있는 무한인 인간을 채울 수 없다. 왜 채울 수 없는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빛과 그림자를 지니고 결국 그들도 불완전하고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비어 있는 무한인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무한이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온전히 채울 수 있다.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 맹목적인 무한이나 넓은 우주도 인간을 채울 수 없다. 크기만 할 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랑의 무한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

인간이란 무엇으로 구성된 존재인가? 인간이란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육체가 지치고 피곤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육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잠을 자고 나면 육체는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는다. 따라서 육체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잠을 잘 일이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인간의 마음은 저절로 힘과 생기를 되찾게 된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의 마음은 생기를 되찾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만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을 저절로 살아나고 힘을 되찾게 된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일이다. 인간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인간의 영혼이 무지의 구름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영혼이 악과 어둠의 심연에서 절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초월적 존재이며 가장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빛 중의 빛이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물음

인간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는 빵을 통해서,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영혼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다.

도, 인간의 방향도 끝이 나고 밝은 빛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는 빵을 통해서 채워지고,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영혼이란 인간만이 지닌 것이다. 식물들은 육체만 있고 마음이 없다. 따라서 식물들은 웃고 쓰다듬어도 반응이 없다. 동물들은 육체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강아지를 보라. 강아지는 단순히 육체로만, 고깃덩어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강아지는 영혼이 없다. 영혼은 오로지 인간만이 지닌 것이다. 강아지는 무덤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천하 만물 중에 영혼을 지닌 존재는 오로지 인간뿐이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나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영혼을 지닌 인간만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삶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육체는 빵을 통해서 채워진다. 따라서 육체를 지닌 식물들에게는 제 때에 물을 잘 줄 일이다. 제 때에 거름을 잘 줄 일이다. 육체를 지닌 존재는 제 때에 물주고, 제 때에 거름 줄 때 싱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좋은 물, 좋은 먹을 거리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다. 부자만 먹는 것이 아니다. 노인도 먹고 환자도 먹어야 한다. 아이들도 먹고 어른들도 먹어야 한다. 고아도 먹고 북한 사람들도 먹어야 한다. 좋은 물, 좋은 먹거리를 먹은 만큼 소화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일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바로 그



것이 구원이다. 자기 몸속에 저장하는 것은 악이요, 잘못이요 죄이다. 따라서 좋은 물, 좋은 먹을거리 먹은 만큼 움직이고 일하고 봉사하기 바란다. 봉사는 최고의 구원인 것이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이다.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워진다. 따라서 육체와 마음을 지닌 동물들에게는 밥도 잘 주고 사랑도 잘 줄 일이다. 환자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간호사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사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두가 마음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좋은 약만, 좋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 나의 미소를 나의 친절을 주어야 한다. 마음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 사랑을 주어야 한다. 이 사랑을 환자가 먹을 때 환자는 다시 살고 싶은 원의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 바로 그 강한 원의가 병도 더욱 잘 낫게 하는 것이다. 환자가 사랑을 먹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며 이때 바로 모든 신체의 기능이 원활해져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마음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된다. 마음을 지닌 존재의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주는 수밖에 없다. 마음을 줄 때 마음을 얻게 된다. 마음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인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얻게 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사랑에 실패하는가? 왜 사랑의 문을 닫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준 사랑이 무(無)로 끝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한 번 생각해 보라.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개는 인간보다 IQ가 낮다. 인간보다 IQ가 낮은 개도 주인이 잘해 주었는지, 잘못해 주었는지를 안다. 자기

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안다. 개도 안다면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개보다도 IQ가 낮은 사람이다. 개도 안다면 인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드시 알고 있다.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좀 더 항구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지 반드시 알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인간이 빵과 사랑에 의해 채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고독을 느끼고 무의미를 느끼고 권태를 느끼는 존재이다. 사랑의 무한이신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방황하는 존재이다. 영혼을 지닌 인간은 하느님을 만날 일이다. 하느님을 만날 때 인간의 물음도 끝이 나고, 인간의 방황도 끝이 나고, 인간의 갈망도 끝이 난다.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을 만날 일이다.

50대 가정주부의 이야기이다. “성실하고 신의 있는 남편을 만나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나에게 헌신적입니다. 자녀들도 잘 커서 이제는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고 이제 집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요즘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함과 무의미를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도 그려보고, 여행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해도 늘 마음속에 우울함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깊은 우울과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 안에서 깊은 우울과 슬픔을 느낄 때, 그 우울과 슬픔은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인생 안에서 깊은 고독을 느낄 때, 그 고독은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이 무한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방황하는
존재이다.



소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인간은 빵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으면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에 하느님을 만날 때, 모든 물음과 방황이 끝이 나고, 인간 존재가 새롭게 변형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좋은 물, 좋은 먹을거리도 주어야 하지만, 나의 미소, 나의 친절, 나의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느님을 믿게 해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톨릭 봉사자들은 강요가 아니라 깊은 믿음과 깊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전해주시기 바란다. 그 환자가 하느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육체는 빵을 통해서 채워지고,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7. 봉사자의 자세

이와 같이 인간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봉사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봉사자의 육체가 튼튼해야 한다. 좋은 물, 좋은 먹거리를 많이 잡수시기 바란다. 좋은 물, 좋은 먹을거리를 먹은 만큼 움직이고 일하고 봉사하시기 바란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인생을 가장 잘사는 길이다.

두 번째로 봉사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성격의 모남, 주파수 안 맞는 것, 단점까지도 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감싸주는 인간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가 6,36) 자비로운 인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인이 되어야 할 목표이다. 이것이 인간의 완성이고 구원받은 상태이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마련이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는 것이다. 자비가 있으면 자비가 나오고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따뜻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따뜻함, 저절로 자비가 나오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를 너에게 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때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다. 봉사자는 우선 먼저 마음이 따뜻할 일이다.

셋째 봉사자는 영혼이 맑아야 한다. 영혼이 맑아야 멀리 보고 깊게 본다. 영혼이 맑아야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게 된다. 영혼이 맑아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봉사하게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로 그분들이 바로 수도자요 사제임을 본다. 아니 바로 그분들이 성인들이요 예수님임을 본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움이요, 아름다움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 선(善)이 확대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물결이 이루어진다. 악(惡)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선(善)도 영향을 미친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 분들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푸르름을 지니는 것이다.

봉사자는
육체가 튼튼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영혼이
맑아야 한다.



영혼이 맑으려면, 순수하고 항구하게 봉사하려면 늘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밥을 세 번 먹듯이 세 번 꼭 기도해야 한다. 아침에 태양이 떴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여,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랑하여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머무름의 시간을 통하여 삼중기도, 아침기도 바치고 그날 필요한 은총을 바치는 청원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아침 성무일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님! 이렇게 좋은 아침,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성모병원에 특강을 가는데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곳에서 강의 하려면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 사랑하옵 주님! 제가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리를 받아들여 그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점심을 먹기 전에 삼중기도 바치고 다시 청원기도를 바친다. 당신의 사랑의 길과 진리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 해가 졌을 때, 자기 전에 하느님을 사랑하여,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랑하여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머무르는 마음, 삼중기도 저녁기도 바치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기도이다. 하루에 세 번 밥을 먹듯이 세 번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나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 슬픔과 기쁨을 내어 맡길 때, 성공과 실패를 내어 맡길 때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평화롭게 된다. “하루의 삶”이라는 제 가슴 속에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낮에 하느님의
진리를 호흡하고
저녁에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하느님의
안식에 든다.

아침에 일어나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낮에 하느님의 진리를 호흡하고
저녁에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하느님의 안식에 든다.

하루의 삶 속에 영원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 차원을 알게 되면 하느님이 주신 이 삶이, 이 생명이,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아울러 늘 아침 기도 중에 외우는 구상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를 들려주고 싶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짜기 웅덩이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8. 사랑의 길- 신성 차원의 사랑을 해야 구원된다

인간은 세 가지 근본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 세 가지 성향은 다름 아닌 동물성, 인간성, 신성이다. 이 인간이 지니는 세 가지 근본적인 성향을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겠다.

동물성 - 1대 맞았는데 10대 때리는 것(미움, 복수, 파괴, 폭력), 잘해주고 사랑해주었는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 자기는 조금 주고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 돈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것 실패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1등을 내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인간성- 한대 맞았을 때 한대 때리는 것(인간의 정, 보통의 용서, 보통의 사랑)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한 사람만 그 사랑을 주는 것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일하고 돈 버는 것 실패를 자신의 탓과 책임으로 돌리는 것 열심히 공부하면서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신성-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큰자비, 큰 사랑, 큰 용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성취 입은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 타인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돈 버는 것, 실패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실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일등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등하도록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 줄 때 우리는
신성 차원의
사랑을 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동물성 쪽으로 갈수록 인간과 인간 사회는 비참해지고 신성쪽으로 갈수록 인간과 인간 사회는 만족과 평화를 누린다. 누군가가 사회가 안정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종교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종교는 인간이 지닌 동물성의 극한 체험을 통해 그 환멸을 느낀 바탕 위에서 발전해온 인간성의 꽃인 신성의 영역인 것이다. 바로 이 신성의 영역이 본래적 사랑의 영역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신성차원의 사랑을 하라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성 차원의 사랑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랑은 이방인과 죄인들도 할 줄 안다고 하셨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 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루가 6, 32-33) 원수를 사랑하고 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 줄 때 우리는 신성차원의 사랑을 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